

조선후기 궁중 연향 복식의 시맨틱 아카이브 구축 연구

인문정보학과 김현승

목차

I.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 연구 검토
3. 연구 목적
4. 연구 대상
5. 연구 방법

II. 조선후기 궁중 연향 복식

1. 왕실 복식
2. 외빈 · 내빈 복식
3. 여관 복식
4. 정재 복식
5. 악인 복식

III. 조선후기 궁중 연향 복식 시맨틱 데이터 편찬을 위한 모델 설계

1. 시맨틱 데이터 모델링
2. 조선후기 궁중 연향 온톨로지

IV. 조선후기 궁중 연향 복식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1. 데이터 편찬
2. 시맨틱 데이터 네트워크 그래프

V. 조선후기 궁중 연향 복식 시맨틱 데이터 큐레이션

1. 복식 정보의 확장
2.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큐레이션

V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 배경

조선시대의 복식 제도는 시대적 가치와 사상을 명확하게 반영하며, 엄격한 계급 질서를 기반으로 한 사회 통제의 기제로서 기능하였다. 특히, 궁중 복식은 단순한 기능적 의복의 영역을 넘어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복합적인 문화유산이며, 이는 당대 최고의 직조, 염색, 자수 기술을 비롯한 물질적 자원과 심미적 가치가 집약된 결정체로, 역사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복식의 사회적 기능과 가치는 왕실 의례 및 행사에 참여하는 인물들의 복장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 성리학적 이상 국가를 구현하고자 했던 조선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국가 의례 중 하나인 연향례(燕饗禮)에서는 다양한 신분 계층이 각자의 직위에 부합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한자리에 모여 당시의 사회 질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의례의 전 과정을 기록한 종합 보고서인 『의궤(儀軌)』는 당시의 사회, 문화, 기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적 사료가 되며, 행사 참여자들의 신분과 직위별 복식의 종류, 구성, 그리고 제작에 사용된 재료, 색상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복식사 연구의 자료로도 활용된다. 따라서 궁중 연향 의례와 의례 복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조선시대 궁중 문화와 의생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며, 이는 당대 복식 제도의 위상과 사회적 기능을 규명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러한 원천자료에 대한 심층 연구의 필요성은 최근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흥행과 함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산업으로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¹⁾ 특히 한국의 전통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더욱 부각되고 있다.²⁾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누적 관람객

1)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열풍인 '한류'는 2000년대 초반에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었고, 2010년대부터는 뉴미디어와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꾸준한 성과를 보이며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더 한국적인 콘텐츠, 즉 한국의 전통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참조: 김희조, 이형용, 「한국 문화콘텐츠 만족도가 한국산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미치는 영향」, 『한국통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2025년 4월, 한국통상정보학회, 2025, 169~173쪽.; 성균관대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유건식 초빙교수, 「한류와 K-콘텐츠: 세계를 움직이는 문화의 흐름과 미래」, 《소셜임팩트뉴스》, 2025년 4월 25일. (<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15>);

수가 2025년 상반기에 용산 이전 이후 최다 기록(약 270만 명)을 세우고,³⁾ 매년 봄과 가을에 서울에서 열리는 ‘궁중문화축전’의 외국인 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26.3% 증가한 사실에서 입증된다.⁴⁾ 또한, 국제적인 콘텐츠 플랫폼 넷플릭스(Netflix)에서 흥행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는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해외 시청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⁵⁾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 전통 문화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중 하나인 궁중 연향 관련 콘텐츠는 국가유산청, 한국문화재단, 국립국악원 등에서 활발히 재현 및 공연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하는 ‘궁중문화축전’의 연향 재현은 『의궤』 기록을 토대로 복식, 무용, 음악, 음식 등을 복원하여 공연 및 체험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⁶⁾ 국

2) 신상민, 「한류콘텐츠만큼 수요 높은 전통문화, 정작 공급 부족」, 《뉴스토마토》, 2024년 12월 17일.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8388>)

3) 「한류 열풍 타고…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 급증」,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2025년 7월 2일. (<https://www.museum.go.kr/MUSEUM/contents/M0701040000.do?schM=view&atCustomType=post&catId=93&arclId=22856>)

4)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주최한 「2025 봄 궁중문화축전」은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 진행되었으며, 5대 궁궐(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과 종묘에 총 68만 3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그 중 외국인 관람객 수는 138,225명으로 전년 대비 26.3% 증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참조: 「2025 봄 궁중문화축전」(4.26.~5.4.), 68만여 명 다녀가며 성황리에 마무리», 국가유산청 보도자료, 2025년 5월 9일. (https://www.khs.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jsessionid=WxkieDfrMthB06PfWUfDtPOHZsE6s2PO6TcO28W0jpXvGXg9lQDUxwDDuqhlz78P.cha-was02_servlet_engine1?newsItemId=155705412§ionId=b_sec_1)

5) 넷플릭스(Netflix)에서 2025년 6월에 공개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넷플릭스 영화 부문 역대 최고 시청수(3억 1,420만 뷰)를 기록하였다. 특히 OST가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오르고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천만 회를 돌파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한국 문화와 K팝을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작품의 배경이 되는 한국의 문화적 요소(도깨비, 김밥, 남산 등)가 해외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참조: Julie Yoonnyung Lee, 「KPop Demon Hunters: How the Netflix film became a global sensation」, 《BBC》, 2025년 7월 16일. (<https://www.bbc.com/culture/article/20250715-the-animated-k-pop-film-that-swept-the-world>); 장다희, 「'케이팝 데몬 헌터스', 누적 시청수 3억 돌파…넷플릭스 콘텐츠 최초」, 《iMBC연예》, 2025년 9월 17일. (<https://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476659>); 조윤서, 「전 세계가 주목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한국 문화 요소」, 《미디어한남》, 2025년 9월 4일. (<https://mediacent.hannam.ac.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0>)

6) 김희재, 최희수, 「한류3.0 시대 속 궁중문화를 활용한 축제에 관하여 -제 2회 궁중문화축전을 중심으로-」, 2016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6, 285~289쪽.; 「봄 정취 물씬 풍기는 고궁에서 만나요, '2025 봄 궁중문화축전」, 국가유산청 보도자료, 2025년 4월 7일. (https://khs.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jsessionid=sIxma9ccaPwyJ5VJDRnDaQIRuiE9abEm2uyaPWi54oVkvzlielmVGeaiuaOw4gWIH.c.ha-was02_servlet_engine1?newsItemId=155705347§ionId=b_sec_1)

립국악원 역시 원전 고찰을 통해 정재무를 재현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제국 마지막 궁중잔치인 ‘임인진연’을 120년 만에 재현하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⁷⁾

그러나 이러한 재현 공연 및 문화 콘텐츠 제작의 기반이 되는 관련 자료들은 그 근거가 되는 연구가 개별 학문 분야별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궁중 연향의 복합적인 요소를 한데 묶어 제공하는 종합 데이터 아카이브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궁중 연향은 복식, 정재, 음악, 음식, 그리고 참여자 정보 등 여러 분야의 방대한 양의 자료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각 연구 결과물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여 상호 연결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관 자료들을 상호 연결하여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0~202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에서 수행한 『한양도성 타임머신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편찬 연구』(이하 '한양도성 타임머신'이라 한다.)를 기반으로 한다. '한양도성 타임머신'은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역사와 문화 관련 지식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상호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현하는 연구 사업이다.⁸⁾ 당시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본 연구자는 조선 왕실 의례 복식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정리, 데이터 편찬, 그리고 복식 3D 모델링을 위한 고증 작업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분야의 연구 정보가 협업을 통해 공유되고 서로의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경험하며, 복식사 연구가 전통적인 방법론에서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 정보의 공유와 의미 연결의 확장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양도성 타임머신'이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구였다면, 본 연구는 궁중 연향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전문화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복식이라는 특정 분야의 심화된 데이터 공유를 통해 한국 전통 문화 콘텐츠의 활용성을 증대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 탐구하는 데 그 의의를 가

7) 김영희, 「국립국악원의 정재 전승양상 - 정기공연을 중심으로 -」, 『국악원논문집』 제27집, 국립국악원, 2013, 59~74쪽.; 「120년 전 마지막 궁중 잔치 ‘임인진연’을 아시나요?」, 국립국악원 보도자료, 2022년 3월 16일. (<https://www.gugak.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5006002&boardtypeid=60&boardid=43672&lang=ko>)

8)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과제의 일환으로 문화재청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수행한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사업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에서는 사업 대상 고건축물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역사와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사·추출하여 데이터화 하고, 데이터 요소 상호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대상 자료의 내용을 분석·응용·확장할 수 있는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현하였다. (<https://dh.aks.ac.kr/hanyang2/wiki/index.php/대문>)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선행 연구 검토

1) 조선후기 궁중 연향 문화 및 복식 연구

① 궁중 연향 의례와 연향도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연구⁹⁾

② 궁중 연향 복식 연구

- 정재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 함께 포함된 복식 연구¹⁰⁾
- 정재별 복식을 주제로 하는 연구¹¹⁾
- 연향별 복식 연구¹²⁾

9) 서인화, 박정혜, 주디 반 자일, 『조선후기 진연 진찬 진하병풍』, 국립국악원, 2000.; 김경실, 『(궁중 연회와 무용)조선후기 궁중진연 복식』, 경춘사, 200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권1~3, 민속원, 2003.; 국립고궁박물관 엮음, 『조선후기 궁중의 잔치, 연향』, 글항아리, 2013.; 안태욱, 『궁중연향도의 탄생 : 조선후기 연향 기록화와 양식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 민속원, 2014.

김종수, 『조선후기 궁중연향의 본질과 여악제도의 변천』, 민속원, 2018.

김종수, 『(의례로 본) 조선후기 궁중연향 문화』, 민속원, 2022.

10) 김영희, 「국립국악원의 정재 전승양상 - 정기공연을 중심으로 -」, 『국악원논문집』, 제27집, 국립국악원, 2013, 59~74쪽.; 손선숙, 「響鈴舞 呈才圖 研究 - 『進爵儀軌』·『進饌儀軌』·『進宴儀軌』를 중심으로 -」, 『한국음악사학보』, 38호, 한국음악사학회, 2007, 79~106쪽.; 백미진, 「佳人剪妝丹의 역사적 전개와 연향양상 고찰」,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송가영, 「문헌으로 본 조선후기 궁중연향 처용무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11) 장사훈, 「악복과 무복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 특히 악학궤범과 각종 진연의례를 중심으로 -」, 『동양음악(구 민족음악학)』, 7집권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85, 1~31쪽.; 최미희, 조효순, 「조선후기 궁중무용 복식 연구(1)-光武 6年 呈才 服飾을 중심으로-」, 『한복문화』, 1권 2호, 한복문화학회, 1998, 185~197쪽.; 김경실, 「조선후기 연회대무 동기복식 고증 및 재현」, 『복식』, 제52권 6호, 한국복식학회, 2002, 1~13쪽.; 박가영, 「『순조무자진작의궤』에 나타난 궁중무용복식의 고증 및 디지털콘텐츠화」, 『한복문화』, 13권 1호, 한복문화학회, 2010, 103~120쪽.; 박지웅, 「『악학궤범』과 『정재무도홀기』를 기반으로 재현된 아박무의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진덕순, 이은주, 「의례를 통해 본 궁중 검기무 복식」, 『국악원논문집』, 37호, 국립국악원, 2018, 353~388쪽.; 최윤희, 이은주, 「조선후기 궁중 무고(舞鼓) 여령복식에 관한 연구」, 『국학연구』, -권 제49집호, 한국국학진흥원, 2022, 295~343쪽.; 최윤희, 이은주, 「조선후기 궁중 선유락 복식 연구」, 『국악원논문집』, 48호, 국립국악원, 2023, 305~335쪽.; 이민정, 이희정, 이연, 김은선, 한수경, 김지은, 최봄이, 장유진, 「CLO를 활용한 1848 무신년 진찬 정재여령의 가상 의상 재현 연구」, 『한복문화』, 27권 1호, 한복문화학회, 2024, 97~122쪽.

12) 김경실, 유송옥, 「헌종왕후 칠순 진찬 10 곡도병과 신축진찬의례에 나타난 복식연구」,

- 정재 복식 이외의 연향 참여자 중심의 복식 연구¹³⁾
- 개별 복식 연구¹⁴⁾

문제 의식 : 전통적인 복식 연구의 한계와 통합적 아카이빙 연구의 필요성

현재까지의 궁중 연향 의례 복식 연구는 주로 『의궤』에 나타나는 왕실 인원 복식과 정재 복식을 중심으로 복식의 형태 고증 및 복원에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연구 방식은 개별 복식의 기술적 서술을 풍부하게 만들었지만, 복식과 관련 인물, 장소, 사건, 기타 유관 자원 간의 복잡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복식뿐만 아니라 각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 예를 들어 인물, 행사, 공간, 음식, 정재 등의 파편화된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아카이빙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조선시대 복식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화 및 데이터 아카이브 연구

① 조선후기 복식의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화 연구

- 복식 고증 이후 2D 및 3D 제작 연구¹⁵⁾
- 복식 유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연구¹⁶⁾

-
- 『服飾(복식)』, 제32권, 한국복식학회, 1997, 31~43쪽.; 이은주, 「1743년 영조 오순 어연례 참여자의 복식 고증」, 『한복문화』, 11권 2호, 한복문화학회, 2008, 75~90쪽.
- 13) 박지원, 「조선시대 의녀의 다양한 역할과 복식 연구 - 의궤의 진찬도와 반차도를 중심으로 -」, 『한국 복식』, 52권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24, 109~128쪽.
- 14) 박가영, 「궁중정재복식에 사용된 한삼의 변천」, 『국악원논문집』, 34권 -호, 국립국악원, 2016, 49~68쪽.
- 15) 박가영, 「『순조무자진작의궤』에 나타난 궁중무용복식의 고증 및 디지털콘텐츠화」, 『한복문화』 제13권 1호, 한복문화학회, 2010, 103~120쪽.; 이은주, 이경희, 「1829년 〈명정전진찬도〉의 정재차비(呈才差備) 복식 연구」, 『한복문화』, 19권 4호, 한복문화학회, 2016, 151~169쪽.; 이은주, 이경희, 「1829년 자경전 진찬에 참여한 왕실 구성원과 내외빈(內外賓)의 복식 연구」, 『한복문화』, 20권 2호, 한복문화학회, 2017, 61~80쪽.; 이은주, 이경희, 「1829년 자경전 진찬에 참여한 차비(差備)의 역할과 복식 유형」, 『한복문화』, 20권 3호, 한복문화학회, 2017, 127~148쪽.; 김영선, 「문화유산 활용 3D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고증연구 -미국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 소장 《평양감사향연도(平壤監司饗宴圖)》를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이민정 외, 「CLO를 활용한 1848 무신년 진찬 정재여령 가상 의상 재현 연구」, 『한복문화』 제27권 1호, 한복문화학회, 2024, 97~122쪽.
- 16) 유지수, 「복식유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개선방안 연구」, 강릉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5.; 이운서, 「한복 유물 데이터 아카이브를 위한 DB 설계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5.

② 조선 왕실 의례의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연구¹⁷⁾

문제 의식 : 한국 전통 복식 정보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부재

21세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문학 연구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선후기 궁중 연향 복식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의 전통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재조명받으며 강력한 한류 열풍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전통문화의 재현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가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는 가운데, 그 시대의 시각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인 전통 복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대중적 접근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 전통 복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구축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형 아카이브는 전무한 실정이다. 2D 이미지 제작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3D 모델링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역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데이터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아 활용성에 한계를 보인다. 콘텐츠 소비자 및 생산자 모두에게 전통 복식에 대한 정확하고 친절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시점이다.

3.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조선후기 궁중 연향 참여자들의 복식 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편찬하고, 파편화된 정보를 연결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복식사 연구 방법의 한계는 궁중 연향과 같은 복합적인 문화유산을 다룰 때 명확히 드러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의 파편화 및 상호 연결성 부재이다. 궁중 연향 복식은 단순한 의복 정보 외에도 그 복식을 착용한 연향의 참여자, 연향에 사용된 음악, 정재, 연향이 열린 장소 등 여러 학문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전통적인 연구 방식은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의궤』와 같은 1차 사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물을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각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가 개별적으로 존재할 뿐, 상호 관계가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통합적인 지식 체계를 구축하

17) 김현승,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복식 고증과 디지털 콘텐츠화」,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6.; 『한국 기록유산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자원 개발』,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2016~2017.; 『한양도성 타임머신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편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2020~2022.

기 어렵고, 복합적인 상황을 한데 엮어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통합적 고증의 비효율성이다. 드라마, 영화, 게임 등 고증이 필수적인 문화 콘텐츠 제작 시, 제작자는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분야의 연구 결과물들을 수작업으로 취합하고 교차 검증해야 하므로, 시간과 재정적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

셋째, 디지털 기술과의 연계 제약이다. 전통 연구의 결과물은 주로 텍스트 기반의 논문, 보고서, 도서 형태로 존재하여 기존 연구 자료는 기계 판독성(Machine Readability)이 낮다. 이는 통합적인 지식 체계 구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연구 방법론에 부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연구를 시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 조선후기 궁중 연향 복식의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전통적인 복식사 연구 방법론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연구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궁중 연향 참여자들의 복식 자료를 종합적으로 망라하는 아카이브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현재는 복식 중심의 아카이브 구현에 초점을 맞추지만, 궁극적으로는 궁중 연향의 복합적인 문화 요소 전체로 데이터가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한다.

첫째,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연향 『의궤』의 기술 체계와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다. 그 속에서 연향 참여자가 착용한 복장 및 복식 요소와 관련 문맥적 요소(인물, 장소, 정재 등)를 추출하고 이들 요소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시맨틱 데이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구축된 시맨틱 아카이브가 단순한 자료 보관소를 넘어, 미래 시대의 전통문화 연구 방법론을 제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복식사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 질문을 탐색하고 데이터 기반 연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학제 간 협업을 통한 학술적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셋째, 궁중 연향 복식 문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 접근성을 확보한다. 이는 전통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부응하며, 손쉽게 정보를 탐색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이 아카이브는 다양한 전통 문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고증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구축된 정형 데이터는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기능함으로써 한복을 재현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하는 등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창의적 활용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 대상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현전하는 연향 의궤와 연향도를 중심으로 복식과 관련 내용을 고찰하고자, 1630년(인조 8)부터 1902년(고종 39)까지로 시대적 범위를 한정한다. 연향 의궤의 목록을 연향 시기와 연향 설행 목적, 소장처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자세한 연구 범위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표 1> 연향 의궤 및 연향도 목록

의궤 명칭 ¹⁸⁾	설행 시기 및 목적	의궤 소장처	연향도 ¹⁹⁾ 소장처
豐呈都監儀軌 풍정도감의궤	1630년(인조 8) 3월 인목왕후의 만수무강 기원	국립중앙박물관	-
(己亥)進宴儀軌 (기해)진연의궤	1719년(숙종 45) 9월 숙종의 기로소 입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삼성리움미술관
(甲子)進宴儀軌 (갑자)진연의궤	1744년(영조 20) 10월 영조의 기로소 입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乙酉)受爵儀軌 (을유)수작의궤	1765년(영조 41) 10월 영조의 즉위 40년과 보령 72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園幸乙卯整理儀軌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년(정조 19) 윤2월, 6월 혜경궁의 회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동국대학교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己巳進表裏進饌儀軌 기사진표리진찬의궤	1809년(순조 9) 2월 혜경궁의 관례 60주년	영국국립도서관	-
惠慶宮進饌所儀軌 혜경궁진찬소의궤	1809년(순조 9) 2월 혜경궁의 관례 60주년	장서각	-
慈慶殿進爵整禮儀軌 자경전진작정례의궤	1827년(순조 27) 9월 원손의 탄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²⁰⁾ 장서각	-

18) 의궤의 명칭은 원자료에 『진연의궤』, 『진작의궤』, 『진찬의궤』, 『수작의궤』로만 되어 있는 경우 설행 시기를 괄호 안에 넣어 함께 표기함으로써 중복 명칭을 피하고 설행 시기를 알

(戊子)進爵儀軌 (무자)진작의궤	1828년(순조 28) 2월, 6월 순원왕후의 40세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
(己丑)進饌儀軌 (기축)진찬의궤	1829년(순조 29) 2월, 6월 순조의 즉위 30년과 보령 40세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장서각	삼성리움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戊申)進饌儀軌 (무신)진찬의궤	1848년(헌종 14) 3월 순원왕후의 육순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戊辰)進饌儀軌 (무진)진찬의궤	1868년(고종 5) 12월 신정왕후의 회갑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미국LA카운티 미술관
(癸酉)進爵儀軌 (계유)진작의궤	1873년(고종 10) 4월 신정왕후의 대비책봉 40주년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장서각	-
(丁丑)進饌儀軌 (정축)진찬의궤	1877년(고종 14) 12월 신정왕후의 칠순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
(丁亥)進饌儀軌 (정해)진찬의궤	1887년(고종 24) 1월 신정왕후의 팔순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壬辰)進饌儀軌 (임진)진찬의궤	1892년(고종 29) 9월 고종의 즉위 30년과 보령 41세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

수 있도록 하였다.

19) 의궤에 수록된 연향도를 제외한 목록이다.

20) 소장번호 <>는 한글로 작성된 의궤로 표제는 『』이다.

(辛丑)進饌儀軌 (신축)진찬의궤	1901년(고종 38) 5월 효정왕후의 보령 71세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辛丑)進宴儀軌 (신축)진연의궤	1901년(고종 38) 7월 고종의 보령 50세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연세대학교 박물관
(壬寅4月)進宴儀軌 (임인4월)진연의궤	1902년(고종 39) 4월 고종의 기로소 입소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국악원
(壬寅11月)進宴儀軌 (임인11월)진연의궤	1902년(고종 39) 11월 고종의 망육과 즉위 40년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본 연구는 복식을 중심으로 하되, 궁중 연향 문화의 구체적인 재현을 위하여 연향 참여자, 연향이 열렸던 장소, 연향에 올려진 정재와 정재에 사용된 무구, 참여자들에게 제공된 음식 등도 일부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연구 대상 범위 제한 : 궁중 연향에는 인물, 복식, 정재, 악장, 음식, 물품, 장소 등 복합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다. 따라서 전체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학문 분과 연구들이 긴밀한 협업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 본 연구자는 ‘한양도성 타임머신’ 연구에서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본 바,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복식을 중심으로 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정보들을 위주로 하는 아카이빙을 우선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후속 연구 과제를 통해 각 분야의 연구 성과를 통합적으로 아카이빙하여 지식 정보를 확장해 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의궤에 나타나는 참여자 복식

각 의궤별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 열렸으며, 누가 참여했고, 어떤 정재들이 있었는지 정리하고 행사들마다 어떤 복장(복식)들이 입혀졌는지 서술.

<표 2> 연향 의궤에 나타난 참여자들의 복식

의궤	참여자	복장 · 복식

5.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조선후기 궁중 연향 복식에 관한 지식 정보를 아카이빙하기 위한 시맨틱 데이터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먼저, 시맨틱 데이터 편찬의 핵심 대상이 될 복식 고증 및 자료의 종합적인 탐색을 진행한다. 연향에 참여하는 인물이 착용했던 복식은 단순한 의궤 원문 검토를 넘어선 복합적인 자료의 교차 검증을 필요로 한다. 복식 고증을 위한 기초 자료는 궁중 연향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한 의궤 원문을 중심으로 수집한다. 조선시대 신분별 복식 제도의 규정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통해 확인하며, 왕실 인원의 세부 복식 정보는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 그리고 『상방정례(尙方正例)』 등을 참고한다. 대한제국기 왕실 복식 규정에 대해서는 『대한예전(大韓禮典)』을 참고하여 시대별 변화 양상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문헌 자료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복식의 실제 색채, 문양, 착용 시 형태 등 시각적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회화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다. 아울러 각 복식 아이템의 구조적 이해와 실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전하는 유물 자료를 함께 고찰한다. 이처럼 과거 문헌 자료와 유물, 회화 자료를 포괄하는 고증 과정을 통해 확보된 근거 자료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고증 과정을 거쳐 복원 및 재현된 복식의 모습까지도 함께 아카이빙하여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문헌 : 연향 의궤 원문. 왕실 인원 복식을 위해 필요한 문헌들. 법전. 복식 제도를 규정한 문헌들.

- 회화 자료 : 궁중기록화, 초상화(어진 포함), 풍속화
- 사진 자료 : 근현대의 흑백 사진. 연구를 통해 고증 복원한 실물 사진.
- 유물 자료 : 각 박물관 자원, 개인 소장 자료
- 학술적 근거 자료 : 의궤 · 복식사 · 정재사 · 연향 관련 연구자료, 단행본, 논문, 보고서
- 웹자원 : 2D 일러스트, 3D 어셋

복식 정보에 대한 탐색을 완료한 후에는 문맥 요소(Contextual Elements)로서 복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자원에 대해 탐색한다. 이는 인물, 장소, 정재, 음악 등 복식 착용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후 후술할 온톨로지 설계에 맞추어 각 자료를 분류하고,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데이터를 편찬한다. 이때 개별 데이터의 정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최종적으로, 이처럼 다층적으로 수집 및 분석, 그리고 편찬된 자료를 기반으로 궁중 연향 복식 관련 개체(Node)와 속성(Property)을 정의하고, 온톨로지(Ontology) 기반의 시맨틱 데이터 모델을 구축한다.

II.

【참고문헌】

1. 원전

『豐呈都監儀軌』	『(丁亥)進饌儀軌』
『(己亥)進宴儀軌』	『(壬辰)進饌儀軌』
『(甲子)進宴儀軌』	『(辛丑)進饌儀軌』
『(乙酉)受爵儀軌』	『(辛丑)進饌儀軌』
『園幸乙卯整理儀軌』	『(壬寅4月)進宴儀軌』
『己巳進表裏進饌儀軌』	『(壬寅11月)進宴儀軌』
『惠慶宮進饌所儀軌』	『經國大典』
『慈慶殿進爵整禮儀軌』	『國朝五禮儀』
『(戊子)進爵儀軌』	『國朝五禮儀序例』
『(己丑)進饌儀軌』	『國朝續五禮儀補序例』
『(戊申)進饌儀軌』	『大韓禮典』
『(戊辰)進饌儀軌』	『尙方正例』
『(癸酉)進爵儀軌』	『樂學軌範』
『(丁丑)進饌儀軌』	『祭器樂器都監儀軌』

2. 단행본

- 국립고궁박물관 엮음, 『조선 궁중의 잔치, 연향』, 글항아리, 2013.
- 김경실, 『(궁중 연회와 무용)조선시대의 궁중진연 복식』, 경춘사, 2003.
- 김소현, 『조선왕실 여인들의 복식』, 민속원, 2017.
- 김종수, 『(의궤로 본) 조선시대 궁중연향 문화』, 민속원, 2022.
-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의 본질과 여악제도의 변천』, 민속원, 2018.
- 김 현,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
- 김현, 임영상, 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6.
-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옛 그림에 담긴 조선 왕실의 특별한 순간들』, 혜화 1117, 2024.
- 서인화, 박정혜, 주디 반 자일, 『조선시대 진연 진찬 진하병풍』, 국립국악원, 2000.
- 안태욱, 『궁중연향도의 탄생 : 조선후기 연향 기록화와 양식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 민속원, 2014.
- 이경미, 『제복의 탄생 : 대한제국 서구식 문관대례복의 성립과 변천』, 민속원, 2012.

- 이미선 역주, 『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의 혼례식 풍경을 담다 : 譯註 慶嬪嘉禮時嘉禮廳 膳錄』, 민속원, 2020.
- 이민주,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 조선의 왕실복식』,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 이정희, 『근대식 연회의 탄생 : 대한제국 근대식 연회의 성립과 공연문화사적 의의』, 민속원, 2014.
- 한복려, 이효지, 정길자, 『고종 정해년 진찬의궤 : 조대비 만경전 팔순잔치』,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9.
- 전통예술원(편), 『국역 헌종무신진찬의궤 : 卷首·卷一』, 민속원, 2004.
- 전통예술원(편), 『국역 헌종무신진찬의궤 : 卷二』, 민속원, 2005.
- 전통예술원(편), 『국역 헌종무신진찬의궤 : 卷三』, 민속원, 200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조선 후기 궁중연향문화. 권1』, 민속원, 200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조선 후기 궁중연향문화. 권2』, 민속원, 200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조선 후기 궁중연향문화. 권3』, 민속원, 2005.

3. 학술논문

- 김경실, 「조선시대 연화대무 동기복식 고증 및 재현」, 『복식』, 제52권 6호, 한국복식학회, 2002, 1~13쪽.
- 김경실, 유송옥, 「헌종왕후 칠순 진찬 10 곡도병과 신축진찬의궤에 나타난 복식연구」, 『服飾(복식)』, 제32권, 한국복식학회, 1997, 31~43쪽.
- 김영희, 「국립국악원의 정재 전승양상 - 정기공연을 중심으로 -」, 『국악원논문집』, 제27집, 국립국악원, 2013, 59~74쪽.
- 김 현, 「디지털 인문학과 고문헌 자료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5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13~38쪽.
- 김 현, 「유교문화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마스터플랜 연구』, 국학진흥원, 2020, 1~42쪽.
- 김 현, 「디지털 시대, 인문학 활동의 디지털 전환 - 한국의 사례: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 『한중인문정책교류포럼』, 2023.
- 김 현, 「디지털 큐레이션 :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인문학 교육」, 『디지털인문학』, 창간호, 2024, 4~33쪽.
- 김희재, 최희수, 「한류3.0 시대 속 궁중문화를 활용한 축제에 관하여 -제 2회 궁중문화축전을 중심으로-」, 『2016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2016년 1월, 글

- 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6, 285~289쪽.
- 김희조, 이형용, 「한국 문화콘텐츠 만족도가 한국산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미치는 영향」, 『2025 한국통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2025권 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25, 169~173쪽.
- 박가영, 「『순조무자진작의궤』에 나타난 궁중무용복식의 고증 및 디지털콘텐츠화」, 『한복문화』, 13권 1호, 한복문화학회, 2010, 103~120쪽..
- 박가영, 「궁중정재복식에 사용된 한삼의 변천」, 『국악원논문집』, 34권 -호, 국립국악원, 2016, 49~68쪽.
- 박지원, 「조선시대 의녀의 다양한 역할과 복식 연구 - 의궤의 진찬도와 반차도를 중심으로 -」, 『한국 복식』, 52권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24, 109~128쪽.
- 서동신, 「디지털 인문학 교육·연구를 위한 시스템 환경」, 『석당논총』, 제89집권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4, 195~229쪽.
- 손선숙, 「響鈴舞 呈才圖 研究 - 『進爵儀軌』 『進饌儀軌』 『進宴儀軌』를 중심으로 -」, 『한국음악사학보』, 38호, 한국음악사학회, 2007, 79~106쪽.
- 이민정, 이희정, 이연, 김은선, 한수경, 김지은, 최봄이, 장유진, 「CLO를 활용한 1848 무신년 진찬 정재여령의 가상 의상 재현 연구」, 『한복문화』, 27권 1호, 한복문화학회, 2024, 97~122쪽.
- 이은주, 「1743년 영조 오순 어연례 참여자의 복식 고증」, 『한복문화』, 11권 2호, 한복문화학회, 2008, 75~90쪽.
- 이은주, 이경희, 「1829년 〈명정전진찬도〉의 정재차비(呈才差備) 복식 연구」, 『한복문화』, 19권 4호, 한복문화학회, 2016, 151~169쪽.
- 이은주, 이경희, 「1829년 자경전 진찬에 참여한 차비(差備)의 역할과 복식 유형」, 『한복문화』, 20권 3호, 한복문화학회, 2017, 127~148쪽.
- 이은주, 이경희, 「1829년 자경전 진찬에 참여한 왕실 구성원과 내외빈(內外賓)의 복식 연구」, 『한복문화』, 20권 2호, 한복문화학회, 2017, 61~80쪽.
- 장사훈, 「악복과 무복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 특히 악학궤범과 각종 진연의궤를 중심으로 -」, 『동양음악(구 민족음악학)』, 7집권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85, 1~31쪽.
- 조경아, 「대한제국기의 음악 : 대한제국기 연향에서 정재 준비와 공연의 변모」, 『한국음악사학보』, 45권 0호, 한국음악사학회, 2010, 107~154쪽.
- 진덕순, 이은주, 「의궤를 통해 본 궁중 검기무 복식」, 『국악원논문집』, 37호, 국립국악원, 2018, 353~388쪽.
- 최미희, 조효순, 「조선궁중무용 복식 연구(Ⅰ)-光武 6年 呈才 服飾을 중심으로-」, 『한

- 복문화』, 1권 2호, 한복문화학회, 1998, 185~197쪽.
- 최윤희, 이은주, 「조선후기 궁중 무고(舞鼓) 여령복식에 관한 연구」, 『국학연구』, -권 제49집호, 한국국학진흥원, 2022, 295~343쪽.
- 최윤희, 이은주, 「조선후기 궁중 선유락 복식 연구」, 『국악원논문집』, 48호, 국립국악원, 2023, 305~335쪽.

4. 학위논문

- 강민정, 「朝鮮時代 宮中呈才에 나타난 童妓服飾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강민정, 「헌선도의 변천 양상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강혜원, 「한국고고학사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모델 설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 공유화, 「춘앵전 무보의 변천 양상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2015.
- 김경실, 「朝鮮王朝 宮中進宴儀軌에 나타난 服飾의 造形美」,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민정, 「검무(劍舞)의 표현양태에 나타난 차별적 요인 : 궁중검무와 통영검무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 김바로, 「제도와 인사의 관계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 근대 학교 자료(1895~1910)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김영선, 「문화유산 활용 3D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고증연구 : 미국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 소장 《평양감사향연도(平壤監司饗宴圖)》를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 김지명, 「기록문화유산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김지선, 「데이터로 읽는 근대 백화점 : 1930년대 종로 화신백화점 데이터 큐레이션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5.
- 김지연, 「朝鮮時代 女性 禮冠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지영, 「朝鮮時代 進宴儀軌類 呈才服飾에 나타난 織物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현승,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복식 고증과 디지털 콘텐츠화」,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김현정, 「高宗 辛丑進饌·進宴儀軌에 나타난 服飾 比較 研究」,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남미화, 「朝鮮後期 記錄畫에 나타난 劍器舞 服飾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류인태, 「데이터로 읽는 17세기 재지사족의 일상 : 『지암일기(1692~1699)』 데이터베이스 편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박은미, 「한삼에 관한 고찰 : 궁중정재에 나타난 한삼의 의미」, 대진대학교 문화예술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지웅, 「『악학궤범』과 『정재무도촬기』를 기반으로 재현된 아박무의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백미진, 「佳人剪牡丹의 역사적 전개와 연행양상 고찰」,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서소리, 「한국 불교기록문화유산의 지식정보 아카이브 구축 연구 : 『범해선사유고』의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5.
- 서소리, 「문화유산 지식 정보 데이터 모델 연구 : 불탑 지식 정보망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송가영, 「문헌으로 본 조선 후기 궁중연향 처용무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 양선희, 「정재의 의물(儀物)과 무구(舞具)에 대한 미적 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오혜경, 「조선시대 舞童服飾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유미자, 「한국과 일본의 학춤 비교 연구 : 韓國 宮中 鶴舞와 日本 京都 鶯舞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유지수, 「복식유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개선방안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 윤은영, 「궁중정재 춘앵전(春鶯囀) 복식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수민, 「1929년 조선박람회의 재현을 위한 메타아카이브 구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이윤서, 「한복 유물 데이터 아카이브를 위한 DB 설계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5.
- 이혜경,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朝鮮時代 宮中行事圖 색채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대학원, 2023.
- 이희정, 「조선후기 궁중 정재(呈才) 여령(女伶)의 황초삼(黃綃衫)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 장민하, 「숙종조 기로연의 궁중무용 복원 사례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정영란, 「『受爵儀軌』에 나타난 儀禮와 服飾 연구 : 佾舞服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정주영, 「1970년대 소극장 연극 시맨틱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 1975년 에저또창고극장, 1976-1979년 삼일로창고극장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정효민, 「연백복지무(演百福之舞)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조미라, 「조선후기 순조대 궁중연향 복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조정임, 「春鶯전服飾考」,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채진영, 「한국전통무용복의 문헌적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최나리, 「조선후기 향발무 연행의 변천 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 최미희, 「光武 6년(1902) 進宴儀軌에 나타난 呈才服飾」,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최윤희, 「조선후기 여령정재 복식과 무구 연구」,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 최윤희, 「조선시대 궁중검기무복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최인숙, 「궁중 연향(宴享) 의궤(儀軌)에 나타난 유소(流蘇) 연구 : 정조조(正祖朝) 이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트와이닝 린지 다이아나, 「해외 한국학 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유산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 한수경, 「해평윤씨(1660~1701년) 습의(襲衣) 원삼(圓衫) 일습(一襲) 복제품 제작을 통한 실제작의와 가상작의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5.

5. 기타자료(연구결과보고서, 보도자료, 강의자료 등)

- 김 현, '디지털 큐레이션: 디지털 인문학의 실천 방법', 2024년 한국학대학원 「인문정

보학입문」 강의 자료 ([http://dh.aks.ac.kr/~tutor/Documents/PDF/2024/김현-2024-디지털큐레이션\(01\).pdf](http://dh.aks.ac.kr/~tutor/Documents/PDF/2024/김현-2024-디지털큐레이션(01).pdf))

김 현, ‘디지털 큐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와 기술’, 2024년 한국학대학원 「인문 정보학입문」 강의 자료 ([http://dh.aks.ac.kr/~tutor/Documents/PDF/2024/김현-2024-디지털큐레이션\(02\).pdf](http://dh.aks.ac.kr/~tutor/Documents/PDF/2024/김현-2024-디지털큐레이션(02).pdf))

박가영, 「『순조무자진작의궤』에 나타난 궁중무용복식의 고증 및 디지털콘텐츠화」, 한국 연구재단 연구결과보고서, 2009.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EKC 데이터 모델’ (https://dh.aks.ac.kr/hanyang2/wiki/index.php/Ontology:EKC_2022)

6. 웹사이트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https://www.gogung.go.kr>)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https://www.overseaschf.or.kr/okchf/index.do>)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main>)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https://www.museum.go.kr/uigwe>)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 (<https://jsg.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위키 (<https://dh.aks.ac.kr/sillokwiki>)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기록유산 Encyves (<https://dh.aks.ac.kr/Encyves/wiki>)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양도성 타임머신 (<https://dh.aks.ac.kr/hanyang2/wiki>)